메트로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제2844호 www.metroseoul.co.kr

꼭 투표하세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모전교 아래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길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용은 나누고 행복은 더한다"

일상으로 스며든 '공유 경제시대' 집중 조명

모여서 집밥 먹으며 토론 원하는 시간 차 빌려쓰기 사용않는 물건·정보·공간 나눠쓰기로 활용 극대화

'아나바다' '품앗이' 진화 공유 비지니스 모델 발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독립 2년차. 지방에서 상경해 홀로 생활 중인 기자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언제일까.

<관련기사 14면>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고 양손 가득 무거운 비닐봉지를 생겨대며 들고 올 때,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날, 불 꺼진 집에 들어가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어느 순간이든 '혼자'라는 것에 영 익숙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혼자에 얽매이기보다 남는 시간을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공유경제'가 있어 기자의 살림살이는 든든하다.

"어서오세요. 백고프시죠. 들어오셔서 아무 자리나 앉으면 돼요."

지난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퇴근 후 문자메세지에 뜬 주소를 따라 10명 남짓한 공간에 발을 내디뎠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만석이던 그곳은 소셜 다이닝 플랫폼 '집밥'을 통한 모임이었다.

신종 공유경제 '소셜 다이닝'은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밥을 먹고 공통 관심사를 교류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모임이다. 예컨대 '예원 맥주를 만드는 모임', '경제 칼럼을 읽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등 다양한 주제 가운데 각자의 흥미에 따라 모임을 고르고 참가비를 내면 된다.

이날도 1만원의 참가비만으로 갓 지은 따뜻한 가지덮밥과 힐링이 되는 콘서트,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 만날 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 8시에도 공유업체가 기자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오전 일찍 여의도에서 인터뷰가 잡혀 있는 터라 무거운 노트북과 가방을 들고 뛰기엔 버스는 애매하고 전철은 조금 둘러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가까운 주차장을 검색했다.

때마침 근처 주차장에 차량 공유 업체 '쏘카'의 나눔카가 있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의도까지 가는 30분 동안 드는 비용은 2830원.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원하는 시간에 차를 빌려 쓰면서도 내 차를 소유한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편리하다.

최근 '집밥' 모임에나 '쏘카' 처럼 집, 자동차 뿐만 아니라 시간, 지식, 경험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을 서로 빌려주는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 불황과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나만 쓰는 '소유'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가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시간, 정보, 공간 등을 함께 나눠 쓰며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경제'는 90년대 후반 함께 아끼고 나누자던 '아나바다' 운동과 전통 나눔 방식이던 '품앗이'의 진화 단계로 볼 수 있다.

대여(rental)의 개념과 유사해보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공유경제는 일반인도 직접 참여해 자원 활용과 거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면접 때 딱 한 번 입었던 정장부터 아이가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비어 있는 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등을 적은 돈으로 빌리고 구매할 수 있는 데다 새로운 소통창구와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까지 추구한다.

물론 하나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개념이므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고 거래와 다르다. 자원의 대여에 상호 대가를 지르는 만큼 기부나 봉사도 아닌 엄연한 경제 활동인 셈이다.

실제 서울시 나눔카 공식 사업자인 '쏘카'는 창구를 연지 3년 만에 월평균 이용 건수가 전년대비 1000% 이상 성장했다. 올 상반기에만 약 7만명의 회원을 유치해 경제적인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 연구기관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2010년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8억5000만 달러 수준에서 2011년 14억7000만 달러, 2012년 27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51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며 연평균 8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타임지도 2011년 공유경제의 기반인 '협력적 소비'를 '세상을 바꿀 10개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한국에서는 2012년 9월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데 이어 사회 곳곳에서 '공유'를 내세운 비즈니스 모델이 싹을 틔우고 있다.

신해성 크라우드 산업연구소 대표는 "차를 공유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에서 시작한 공유경제가 최근에는 기타를 배우는 등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공유경제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더 완전한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천박한 '홍철아 장가가자'

기자 수첩
김 지 연
<연예 스포츠부 기자>

지난주 MBC '무한도전'은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노홍철은 나이가 어리고 키가 큰 여성이 이상형이라고 밝혔다. 1979년생인 노홍철은 또래나 연상의 여성은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멤버들은 홍철의 이상형을 찾기 위해 흩어져 가로수길로, 여대로, 또 이대로 향했다. 그리고 노홍철의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이 보이면 "소개팅 하실래요?"라고 말하며 명함을 찔러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은 즉각 논란의 대상이 됐다.

첫째로 노홍철이라는 남성 한 명을 위해 조건에 맞는 특히 외적인 부분에 치중된 이상형을 찾아 다니는 모습은 현대판 세자빈 간택 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둘째로 방송인 노홍철의 부적절한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일 뿐더러 TV를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30대 미혼 여성 시청자들에게 상처가 될만한 발언이었다.

가장 큰 잘못은 문제점이 넘쳐났던 이날 방송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기획하고 내보낸 제작진에게 있다.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은 전 없이 가볍고 천박했으며 폭력적이었다. 하지만 방송 직후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 제작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혼 조건을 따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작진이 '무한도전'의 영향력을 고려했다면 이 같은 불편한 내용이 전파를 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청사 떠나는 안대희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후보직 사퇴 발표를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대희 총리 후보 전격 사퇴

"전관예우 논란 힘들어…11억 기부 약속은 이행"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후보 지명 불과 엿새 만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처지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다"며 "지명된 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기부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의 대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전격 지명됐다. 그러나 대법관 퇴직 후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조현정기자

6분 화재로 21명 사망 '참사'

장성요양병원 거동불편 환자 많아…스프링클러도 없어

단 6분 만에 진화된 요양병원 화재에 치매환자 등 노인 20명과 불을 끄려던 50대 간호조무사가 숨졌다. 불이 탄 면적이 33㎡에 불과했지만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 남쪽 끝방(306호)에서 불이 난 것은 28일 0시 27분이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다시 2분 만인 0시 33분에 불을 껐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연기였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깊은 잠에 들어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환자들은 연기에 질식해 숨을 거뒀다.

306호는 다용도실로 매트리스, 침구류, 일부 의료기기가 보관돼 있었다. 매트리스 등에 붙은 불로 생긴 연기는 같은 층 10개 방으로 급속히 퍼졌다. 특히 이곳은 불이나 연기가 났을 경우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침대째 복도 끝까지 이동시킨 뒤 환자들을 안아서 1층을 통해 건물 밖으로 이송했지만 상당수는 이미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2층 환자 35명(1명은 외박으로 부재) 가운데 5명은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환자)였으며 25명은 치매 환자, 5명은 노인성 질환자로 대부분 자력 탈출이 어려웠다.

한편 전남 장성경찰서는 치매환자로 입원 중인 82세 김모 할아버지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김 할아버지가 불이 나기 1분 전인 0시 26분에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민준기자

세월호 유족의 호소 세월호사고 유족 대책위원회 소속 한 유족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즉각적인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일가 2400억 추징 보전

측근 고창환·변기춘 구속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씨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이 중에는 유씨 명의의 17억4200만원 등 은행 예금 22억원과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와 경북 청송군 임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또 시가 13억원 상당의 벤츠,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등 자동차 5대와 23개 계열사 주식 총 63만5080주 등 실명재산 대부분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실명 보유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면서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씨 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이사와 변기춘 천해지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민준기자

세월호 국조 '김기춘 증인' 난항

유족들 "조속한 합의·성역없는 조사" 촉구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를 위한 국조계획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조속한 합의와 성역없는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28일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밤샘 협상에 이어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국조계획서에 증인 명시 문제를 놓고 난항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을 국조계획서에 적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비서실까지는 되는데 비서실장' 명시는 안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며 "한국의 또 하나의 성역인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관행이면 모르다 온갖 부패와 비리로 엮어진 관행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며 "정치가 요구하는 것은 특위를 먼저 열든 나중에 열든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확실한 약속이 전제된다면 관계없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멸종위기식물 보존 희망 국립생물자원관은 28일 멸종위기 식물 1급인 한란 등을 영하 196℃에서 조직은 동결보존기법으로 냉동한 뒤 급속 해동해 재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자생식물을 냉동 후 재생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냉동 후 재생된 한란과 노랑붓꽃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억울함 호소하려 지하철 방화

71세 노인 긴급체포… 승객 370여명 대피소동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으로 향하던 열차 객실 내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54분께 도곡역으로 향하던 오금 방면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조모(71)씨를 인근 화상전문병원 응급실에서 검거했다.

조씨는 범죄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인근 화상전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15년전 운영하던 업소의 정화조가 넘쳐 피해를 입었으며 소송과 민원 등을 통해 보상을 받긴 했으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금액이라 불을 질러 자살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방화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화재로 승객 3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고 열차는 승객이 비상벨을 누름에 따라 안내방송을 진행했다. 열차 일부가 도곡역에 진입하자 270여명 승객은 도곡역 승강장으로, 100여명 승객은 열차 선로를 통해 매봉역으로 대피했다.

열차는 역내에 진입한 순간에 불이 나 승객들이 재빨리 내리고 역무원들이 6분만인 11시에 조기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윤다혜기자 yuh@metroseoul.co.kr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 막 진입하려던 오금 방면 전동차 안에서 조모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재난시 소방서장이 경찰·군 지휘

'재난법' 29일 입법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

교육부 출신 사립대 총장 못가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교육부·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으로, 사립대가 빠져 있다.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넣음에 따라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관계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로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윤다혜기자

강북구, 집중호우 대비 나서

서울시 강북구가 관내 하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각종 이물질 청소 등 본격적인 우기 대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침수를 유발하는 하수시설 주변과 내부의 토사·퇴적물·쓰레기를 제거하고 부대시설 2만4000여 곳을 집중 청소한다.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

서울시 중구는 6월부터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중구 청구로3길 69번지 옛 청구경로당 부지에 신축된 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1층은 청구경로당이 사용하고, 지상2층부터 4층은 청구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선다.

금천구, 맞춤형 집수리

서울시 금천구는 롯데건설(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과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차(2014년)·2차(2015년)·3차(2016)로 구분해 진행된다.

스펙보다 사람을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스펙초월 채용 설명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스펙보다 사람을 봐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 관련 '관피아 비리' 철도시설공단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28일 철로 관련 주요 부품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 신안동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사무실과 서울 등지의 납품업체 3~4곳, 관련자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부품 납품 수주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레일체결장치 등 주요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후보 "행복교육 완성하겠다"

'고졸도 선생님 된다' 교실혁명 약속

6·4 서울시 교육감 재선을 노리는 문용린 후보(현 서울시교육감)가 행복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펼쳐질 서울교육을 '행복학교 2'로 명명했다. '행복학교 2'의 완성을 위해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실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실혁명"을 약속했다.

문 후보가 말하는 '교실혁명'은 "고졸도 능력이 있으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학력과 능력의 동등화 정책을 말한다.

현재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고졸자에게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사가 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능력이 학력 못지않게 중시되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문 후보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기능 인력 가운데 특성화고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교원검정시험을 통해 교사로 채용하는 '학력과 능력의 동등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명뮌히 고졸기술자로밖에 대우를 못 받는 아이들에게 4년제 대학을 안 나와도 교사가 되고 교감·교장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라면서 "우수기능 인력 활용을 통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문 후보가 30년 동안 교육계에 하면서 머릿속에 새긴 철학에서 비롯됐다.

또 그는 '교실혁명 2'로 입시의 성적위주로 흐르는 지식수업 중심의 교실수업 시간을 5분씩 줄이고 그 시간을 모아 하루 30분씩 다양한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해 책임과 배려, 정직과 소통, 시민의식, 건강한 문화적 삶을 가꾸는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교실혁명 2'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사회적 책임감 부재, 안전교육 부족을 해결하고 효와 예 등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비롯해 서울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현재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인 수업시간을 5분씩 단축해 초등학교 35분, 중학교 40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업시간을 5분씩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집중도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확보된 하루 30~35분을 "꿈·끼 시간"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유세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과 손을 잡고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용린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그밖에 문 후보가 제시한 안전공약으로는 ▲유아교육부터 생애단계별 실천안전교육 ▲통학버스 안전공영제 도입 ▲학생안전 위험 건물 시설에 안전조치 명령 ▲교외체험 활동시 안전관리 전문가 동행 의무화 ▲서울교육 안전 네트워크 구축 ▲환경개선 특별회계 부활 등이 있다.

그는 남은 선거기간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활짝 꽃피우겠다'는 슬로건으로, 정책선거 의지를 표방하는 현장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1년간 콜센터 1만번 전화

여성상담원 성희롱 일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동통신사 다산콜센터, 경찰 상황실 등에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박모(48·무직)씨를 구속하고 정모(54·무직)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에게 욕설하거나 음란한 말을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년간 총 1만 번가량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을 활용해 신원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불구속된 정씨는 3월 이틀간 서울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자경찰관 3명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며 19회에 걸쳐 욕설과 음란한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m@

마약 밀수 청소년에 판매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마약수사대 관계자가 마약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청소년에게까지 판 혐의로 권모(28)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00달러 위폐 대량 밀수 첫 적발

김해공항으로 미화 100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대량 밀수입하려던 일당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남 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위조된 100 달러짜리 지폐 297장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구속, 위폐 일부를 대리운반해준 이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 여행용 가방에 100 달러짜리 위폐 297장(우리 돈 3000만원 어치)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된 100 달러짜리 지폐가 국내에서 발견된 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밀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현정기자 hj@

'해킹으로 전과목 A+' 로스쿨생 집유

시험지를 빼내려고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적평가에 불신을 가져왔고, 해킹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시험 문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험문제를 개인적으로 확보해 공정한 시험의 가치를 훼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최씨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수들의 PC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coway
공기청정기

창문을 넘는 초미세먼지도 코웨이는 절대 넘지 못한다

초미세먼지는 닫힌 창문 사이로도 집안에 들어올 만큼
입자가 작아 혈액, 심장, 폐, 뇌까지 침투하는 1급 발암물질!
방사성 오염입자는 물론 PM 2.5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미세한
PM 0.1(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와 유해바이러스까지 제거해주는
코웨이만의 앞선 기술력으로 집안 공기를 확실하게 보호해주세요.

PM 2.5의 초미세먼지부터 바이러스까지 걱정 끝! 코웨이만의 토탈 에어솔루션

코웨이의 모든 제품에는 PM 2.5보다 훨씬 미세한 PM 0.1(0.1마이크로미터)까지 99%이상 제거하는 항바이러스 필터시스템이 장착되어있습니다

제품 상담 및 구입문의 1588 5100 www.coway.co.kr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
coway

정수기 | 공기청정기 | 룰루비데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매트리스 케어렌탈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코스닥
2017.08 (+16.43)	549.58 (+1.99)

금리	환율
2.82 (-0.01)	1021.00 (-2.20)

스마트폰 화면을 대형TV에

SK브로드밴드 스마트폰 화면을 TV 등 대형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는 '스마트 미러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SKT제공

연금복권520			제15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2조	780821
		4조	222023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780350
4등	100만원	각조	45408
5등	2만원	각조	543
6등	2000원	각조	81 86
7등	1000원	각조	2 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송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81

스마트폰 6월 대전 '3社 3色'

삼성 '갤럭시S5'·LG 'G3'·팬택 '베가 아이언2' 불꽃 판촉전

LG전자가 28일 초고해상도(QHD) 5.5인치 화면을 적용한 전략 스마트폰 LG G3를 국내 외 6개 주요 도시에서 공개했다.

이날 출시된 G3의 출고가는 89만9900원이다. 올해 출시된 스마트폰 중 두번째로 비싸다. 가장 비싼 출고가는 지난 2월 LG전자가 출시한 G프로2(출고가 99만9900원)로 100만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고가 전략을 앞세운 G3와 지난 3월 국내시장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 이달 출시된 팬택 '베가 아이언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6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3사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신시장에서는 지난 20일 이통사 영업이 재개된 후 번호이동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3일에는 '5·23 대란'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면서 이통3사간 번호이동건수(알뜰폰 제외)가 5만6243건을 기록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에는 최근 출시된 제조사들의 주력 스마트폰 라인업이 한몫하고 있다.

이 중 단연 앞서는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5다. 영업정지 기간 국내 시장에 출시돼 다소 마케팅에 걸림돌이 있었지만 최근 활발한 마케팅 속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갤럭시S5의 강점은 단연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다. 업계 최고 속도의 자동 초점 맞춤 기능과 역광이나 실내에서 생생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1600만 고화소 카메라가 장착됐다.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5.1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최초로 탑재된 심박센서, 배터리 수명 지문인식기능, 생활 방수·방진 기능 등은 큰 주목을 받았다. 출고가는 LG전자 G3보다 3만3000원 낮은 86만6800원으로 책정됐다.

팬택의 '베가 아이언2'는 독특한 디자인을 앞세워 인기를 얻고 있다. 전작인 '베가 아이언'에 비해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은 엔드리스 메탈과 세련된 디자인을 비롯해 배터리, 카메라, 내장형 DMB안테나 등 아쉬웠다고 여긴 부분들을 대폭 개선했다. 5.3인치 풀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슬림한 두께와 가벼운 무게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배터리 역시 3220mAh로 역대 최대 용량을 자랑한다. 출고가 역시 78만3200원으로 경쟁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LG전자 G3는 QHD와 레이저 오토 포커스, 'OIS 플러스' 등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에 강점을 지녔다. 다만 전작인 G2와 비교해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혁신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고가 전략으로 최신 스마트폰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제품이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판매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28일 간담회에서 "G3는 1000만대 이상 판매가 목표"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과연 3사 3색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 속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남지도 '냉장고 바지'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픈마켓 옥션에서 직원들이 일명 '냉장고 바지'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옥션은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이달 12~25일 2주간 냉장고 바지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9% 증가했고 올해 들어 남성들의 구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00대 기업 CEO 절반이 SKY 출신

500대 기업 CEO 2명 중 1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대 졸업자였고, 3명 중 1명은 영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경기고, 대학·전공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였다.

2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3년 연결 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CEO 624명의 3월말 기준 출신지역 등 이력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력을 알 수 있는 586명 중 SKY 출신이 50.5%인 2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가 154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88명(15.0%), 54명(9.2%)이었다.

500대 기업 CEO의 최대 학맥은 대주주 일가와 전문경영인 모두 고려대 경영학과가 차지했다. 허창수 GS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일가 10명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문덕규 SK네트웍스 사장, 이오규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 전문경영인 23명 등 33명이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박용만 두산 회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등 대주주일가 2명, 전문경영인 20명을 배출하며 2위를 기록했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정형진 영풍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등 13명을 배출해 3위에 올랐다.

/김재문기자 kjm

소니 프리미엄 디카 라인업 완성

콤팩트 제품 'RX100 3' 내달 출시

소니가 프리미엄 디카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키운다.

DSLR, 미러리스에 이어 콤팩트 카메라에도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 등 첨단 부품을 적용해 '픽처러 라인업'을 완성했다.

소니코리아는 28일 프리미엄 하이엔드 카메라 'RX100 III'을 공개했다.

24-70mm 구간을 f1.8-2.8의 밝은 조리개로 지원하는 칼자이스 바리오 조나 T렌즈, 칼자이스 T 전자식 뷰파인더(EVF), 180도 틸트 LCD 등을 더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이론상으로는 경쟁 브랜드의 일부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더 뛰어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남성 정장 안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휴대성을 자랑한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RX100 III는 카메라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전적 반영해 기존의 하이엔드 카메라에서는 실현하기 힘들었던 고급렌즈, 고사양의 뷰파인더 등 혁신적인 사양을 지원한다"며 "강력한 광학 성능, 우수한 휴대성,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국내 하이엔드 카메라 시장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블랙 컬러의 알루미늄 바디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신제품은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99만9000원이다. /박성훈기자

"셀카, 인증샷은 가라!"

성능·휴대성 모두 만족…상남자의 '카메라다운 카메라'

캠핑이나 등산, 서이클 등 스포츠 레저 활동을 즐기는 남성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일찍 찾아온 이른과 연휴 덕분에 일찌감치 여행 계획을 세워놓은 얼리 바캉스 족이 늘어 꼭 봐야 할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카메라다.

과거 크고 투박한 DSLR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며 작고 가벼운데다 예쁜 미러리스 카메라는 여성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자들을 위해 작고 가볍지만 고성능으로 무장한 미러리스 카메라가 등장했다.

바로 '셀카나 찍는 카메라가 되지 마라', '인증샷 카메라로 남지 말라'고 조언하는 올림푸스의 OM-D E-M10이 대표적이다. 최근 TV 방영을 시작한 올림푸스의 OM-D E-M10 광고는 상남자의 대표 주자 하정우를 내세웠다. 셀프 카메라나 인증샷 등에 유리한 부가기능이 카메라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어버린 현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진정한 카메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있다.

올림푸스 관계자는 "미러리스가 여성들이 쓰는 카메라로 인식되면서 남자가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운 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성능과 휴대성에서 모두 뛰어난, 남성들을 위한 카메라다운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질을 잊지 않은 카메라

OM-D 시리즈는 과거 필름 카메라 OM 브랜드의 고급스러우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과 고성능 기술력을 디지털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 유저층을 겨냥해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돼 있다.

우선 OM-D 시리즈의 최신작인 OM-D E-M10은 휴대성·디자인·화질-센서, 표현력-렌즈, 시야율-뷰파인더 등 카메라의 4대 요소를 최적화해 최상의 촬영 환경을 제공한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초슬림 표준 전동 줌 렌즈(M.ZUIKO DIGITAL ED 14-42mm F3.5-5.6 EZ)를 장착하면 두께가 약 64mm에 불과해 휴대가 간편하다. 작은 크기에도 손에 밀착되게 설계된 오른쪽 그립 디자인은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 상위 기종인 E-M5와 동일한 1605만 화소 라이브 모스(Live MOS) 센서는 표현력과 노이즈 억제 모두를 만족시켜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제공한다. 여기에 E-M1과 동일한 화상 처리 엔진(TruePic VII)의 완벽한 균형은 최고의 화질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OM-D E-M10은 고화질 전자식 뷰파인더(EVF)라는 최신 기술과 과거 필름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2개의 컨트롤 다이얼을 장착해 '촬영의 즐거움'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최대 81개의 AF(오토포커스, 자동초점) 포인트, 움직이는 피사체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C-AF 기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탄탄한 바디라인도 눈길

필름 카메라의 아날로그 감성을 이어 받은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카메라 바디와 상부에 메탈소재를 적용해 튼튼한 내구성과 균형잡힌 라인을 구현했다. 마치 남성의 근육을 연상케 하는 탄탄한 바디라인과 오로지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컬러로만 판매되는 구성은 '작고 이쁜' 카메라에 지쳐있는 남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꼼꼼 수요자 '4순위 아파트'로

청약통장 필요 없고, 원하는 동·층 선택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위해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입지, 평면, 분양가 등을 따져보고 분양상담까지 받고 나니 다섯 식구가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1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대신 4순위(무순위) 대기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돌아왔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위해 1~3순위가 아닌, 4순위 청약을 선택하는 실속형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청약통장을 사용하기보다 시장환경과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신중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다.

4순위 분양이란 1~3순위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정식 계약일 동안 팔고 남은 물량에 대해 추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미분양 계약과 비슷하지만 사전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양 1~2개월 이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사는 장기 미분양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4순위 대기자 확보에 열을 올린다. 수요자도 통장 없이 원하는 동·층을 선택할 수 있고, 여유를 갖고 충분히 고민한 뒤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에 4순위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 15~16일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대우건설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의 경우 일부 평형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사전에 접수한 4순위자만 1000명이 넘어 순조로운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분양한 1차의 경우 60%만 정당 계약일에 판매되고, 나머지는 4순위자를 대상으로 팔아 2개월 만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며 "이번에도 4순위 접수 건수가 잔여 세대 수를 넘어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충남 당진 송악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한 '당진 힐스테이트'도 순위 내 분양에는 실패했지만 4순위로만 1000명의 신청을 받았다.

호반건설이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분양 중인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2차'는 순위 내 청약에 성공했음에도 향후 미계약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4순위 수요자가 1500여 명이나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정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데다, 이미 통장이 소멸된 소비자가 많아 4순위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감시사회?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4회 보안·안전 전시회'에서 한 업체가 설치한 CCTV가로수 사이로 한 업체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이 영웅입니다"

하나은행 월드컵 숨은 주역 조명 눈길

2014브라질 월드컵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월드컵 숨은 영웅들을 조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의 광고 캠페인 '당신은 나의 영웅(You are my Hero)'은 축구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 뒤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스텝들의 이야기다.

공익 캠페인 형태로 방송되는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리장과 재활트레이너, 장비담당원, 영상매니저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웅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 촬영은 파주에 위치한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와 상계 축구장, 녹음 스튜디오를 오가며 진행됐다.

또 '당신은 나의 영웅'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은행의 모델 김수현과 외환은행의 모델 박지성이 나레이션을 맡아 차분한 목소리로 캠페인의 진정성과 몰입감을 더해주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익 캠페인을 통해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땀 흘리고 있는 숨은 영웅들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함으로서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백아란기자 alive1203@

교대·강남 더블역세권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익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의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5~31층, 3개동, 전용면적 84~149㎡, 전체 28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84A㎡ 26가구 ▲84B㎡ 23가구 ▲119㎡ 18가구 ▲149㎡ 38가구 등 총 10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과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전역은 물론, 분당 등 경기남부로의 이동이 쉽다. 또 경부고속도로 반포IC와 인접,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대부속초, 서초초, 서일중, 서초고, 서울고 등이 위치했고, 서초동 학원가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신세계백화점(강남점), 뉴코아아울렛(강남점), 킴스클럽(서초점), JW메리어트호텔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특히 서초동 삼성타운에 이어 강남역에는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이 예정돼 기대감이 높다.

아파트는 최고 부촌에 위치한 단지인 만큼 외관부터 독특하게 만들었다. 삼각뿔 모양으로 동을 배치해 전 세대에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설계를 적용했고, 단지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저층부 5개층의 외부를 화강석으로 마감했다.

내부에는 롯데건설이 최근 개발한 욕실 수납시스템이 적용됐다. 물기를 피해 보관해야 하는 티슈를 상부장에 두고 밑에서 뽑아 쓸 수 있도록 했다. 하부장엔 세탁물 및 청소용구 보관함을 각각 구성했다.

롯데건설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투시도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캐슬매니저'를 통해 외부에서 조명, 난방, 가스 등 설비를 제어할 수 있다. 외출 시 방문자 확인과 단지 내 놀이터 CCTV 영상까지 확인 가능하다. 특히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과 세대 차량 도착 알림 기능이 가미돼 더욱 스마트해진 기능을 갖췄다.

중앙광장에는 2011 독일 IF 디자인어워드를 수상한 미디어폴이 설치된다. 미디어폴은 LED조명과 음향시설을 조합한 기둥 모양의 멀티미디어 편의시설물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5번지에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며, 입주는 2014년 11월 예정이다. 문의 (02) 522-0082

/박선옥기자 @metroseoul.co.kr

한화, 영상으로 무상 진로교육

충남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멘토링 협약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충청남도교육청(전찬환 부교육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제훈 회장)과 3자 업무제휴를 맺고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3사는 27일 오후 한화S&C 진화근 대표, 충청남도교육청 전찬환 부교육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접하기 어려운 농산어촌의 중학생에게 온라인 화상솔루션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에 있는 5개 중학교가 1년간 혜택을 받는다.

한화그룹 멘토단은 7개의 서비스·레저 부문 계열사가 참여한다. 한화갤러리아의 바리스타와 제선바이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호텔리어, 한화이글스의 야구단 매니저, 한컴의 광고디렉터, 한화63시티의 모니터링관제사, 한화S&C의 프로그래머 등 총 13개 직업군 16명의 한화그룹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한다.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 협약식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충청남도교육청 전찬환 부교육감, 한화S&C 진화근 대표. /한화 제공

이들은 충남 지역 청소년에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직업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하고 생생한 체험사례 등을 소개하며 재능기부를 할 예정이다.

이미 한화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충청남도에 위치한 3개교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제주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제주지역의 16개 중학교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에는 임직원의 재능기부활동과 연계해 한화그룹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캠프(가칭)를 통한 오프라인 만남도 기획 중이다.

/유해군기자

윤후·우결·꽃할배가 알려주는 재테크 비법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을 맞아 "12년 후를 대비한 재테크"를 살펴봅니다. 8세 때 스무살을, 16세 때 서른을, 28세 때 마흔을, 48세 때 예순을. 이런 식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면 어느새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 끝"입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 프로그램 속 주인공들도 우리에게 삶의 각 단계 단계를 알려줍니다. '아빠 어디가', '우리 결혼했어요', '꽃보다 할배'를 통해 알아 본 시기별 적절한 재테크 전략은 무엇일까요?

/김현정기자 h.kim@metroseoul.co.kr

윤후가 들 만한 금융상품은?

주말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출연 중인 가수 윤민수 아들인 윤후의 매력에 푹 빠진 시청자들이 많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윤후가 또래들 사이에서 로맨티스트처럼 굴다가 아빠 앞에선 순식간에 어린 아이로 돌아오는 모습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짓게 만든다.

윤후를 보면서 "나도 저런 자식 하나 낳아볼까"란 생각이 든 솔로나 아니면 "윤후도 귀엽지만 역시 내 자식이 가장 예쁘다"는 부모들이 있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뭐니뭐니 해도 필요한 건 경제적 준비다.

7~8세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자녀로 뒀다면 12년 후 스무살 성인이 될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통장 하나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하나은행의 '꿈나무적금'과 국민은행의 '주니어스타 적금'은 모두 만기 3년에 연 3.6%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야 하므로 좀더 높은 수익률을 바란다면 적립식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운용되는 어린이펀드 53개(설정액 10억원 이상) 중 최근 5년간 수익률 집계가 가능한 41개는 평균 28.02%의 성과를 냈다.

5년간 수익률 1위는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5)'로 무려 79.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펀드와 같은 계열 상품도 70%대 후반의 고수익을 올렸다.

그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으로 '한국투자네비게이터어린이사랑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C-F)'이 이 기간 75.85% 상승했고, '하나UBS가족사랑양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Class C-5'는 46.94% 올랐다.

자녀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면 각종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볼 수 있다.

수업 방식의 금융교육에서 벗어나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경제 관념을 키우도록 이색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최근 중학생 대상으로 명작 동화 '키다리아저씨'를 뮤지컬로 각색한 공연을 펼쳤다. 뮤지컬 곳곳에 금융이나 신용, 보험 등 금융정보를 아이하기 쉽게 담아 호응을 얻었다.

생보위원회는 초등학생에게는 '폴리코스피 미라'란 뮤지컬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금융·보험 개념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전문배우와 극단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만 4만 2000여명의 학생에게 120회 공연을 실시했다.

보드 게임으로 어려운 경제를 재밌게 접하는 방법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한화생명은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보드게임과 같은 교구재를 활용해 체험형 놀이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학교나 복지단체는 한화생명 협력단체인 경제교육 전문 비영리법인 JA코리아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스쿨투어를 통해 교실로 찾아가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경제상식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은 이외에도 '우리아이펀드' 펀드 가입자 중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추첨을 통해 중국 상하이에서 3박 4일 동안 '글로벌 리더 대장정' 행사를 열고 학부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홈페이지(child.miraeasset.com)를 참고하면 된다.

우결이 부러운 솔로들, 이것부터 준비하라

날씨 좋은 주말에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솔로라면 지금이 당장 결혼에 대비한 금융투자에 나설 시점이다.

피아니스트 윤한과 배우 이소연 커플이 서점에서 서로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며 달달한 데이트를 즐겼지만 로맨틱한 연애 감정을 결혼까지 이어가려면 경제적인 대비가 필수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자금 저축 목표는 남성이 6272만원, 여성이 4579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67.9%가 "결혼자금이 부족하면 결혼을 미루겠다"라고 밝혔고 비용 해결을 위해 대출이나 부모님 도움을 받겠다는 대답이 각각 28.7%, 27.5%에 달했다.

남녀 모두 32살 결혼을 가정한다면 스무살 때부터 12년간의 투자기간이 있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장기투자의 장점을 살리고 절세 효과까지 노리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상품을 생각해 볼 만하다.

두 상품 모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장펀드는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4600만원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액은 240만원으로 연말정산에서 39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만 투자액 대비 6.6%다.

가입 당시 5000만원이던 연봉이 올랐더라도 8000만원 이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기 10년 상품인 재형저축도 최소 7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최소 7년(최장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면 정부가 도입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통장은 중소기업 고졸 청년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한 상품이다.

꽃할배처럼 은퇴 후 여행 하려면?

여든에 가까운 할아버지 배우 4명이 아시아와 유럽 곳곳을 배낭여행 하는 tvN '꽃보다 할배'는 은퇴 후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바람을 현실로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이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만 60세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생은커녕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꽃할배와 같이 은퇴 후 여행을 꿈꾼다면 일찌감치 관련 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

전북은행의 'JB행복투어적금'은 매달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투어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여행서비스와 계절별 특별 할인 등을 제공받는다. 환전시 최대 70%까지 환율을 우대해주고 여행자금용 신용대출에는 최대 연 0.5%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부산은행의 'BS 1박2일적금'은 가족과 친지, 이웃 단위의 단체여행 경비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1년제 적금상품으로 매회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 2.5%의 기본금리에 최고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종류도 적금으로 자동이체한 연월 수에 따라 지급하는 '아까둥우 우대이율'과 캠핑장·펜션·리조트 등 숙박영수증 제시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상탈출 우대이율', 적립목표금액 달성 시 지급하는 '적립달성 우대이율'로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배낭여행객 투어

신한은행의 '신한 S힐링 여행적금'은 저축금액의 제한이 없다. 만기는 6개월 이상 최대 36개월까지이며 기본 금리는 3년 만기를 기준으로 연 2.8%이다. 우대금리 0.4%포인트를 고려하면 최고 연 3.2% 금리가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하고 모두투어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동반 1인까지 최고 8%의 할인 혜택을 준다.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여행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에도 모두투어 상품이라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해지이율을 적용한다.

'행복한 노후' 꼭 알아야 할 연금 상식

우리나라는 12년 후에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행복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각도로 은퇴 후 삶을 조명하는 금융권의 시도가 활발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4%, 2026년에는 20% 이상이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도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은 평균 77.9년 살고 여성은 84.6년 살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보다 남자는 4.6년, 여자는 4.2년 늘어난 것이다.

그러다 실제 은퇴 연령이 50대 초중반으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명이 축복만은 아니다.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2의 삶'을 살지, 아니면 위축된 노년을 보낼지가 갈린다.

금융회사에는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 등을 앞두고 있따라 '은퇴' 문제를 고민하는 보고서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로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www.truefriend.com/rplan)는 이를 '3층 연금 보장체계'라고 표현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1층)을 시작으로 1994년 개인연금(2층), 2005년 퇴직연금(3층)이 도입되면서 명목상 이 세 가지 연금제도를 모두 갖췄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중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유의할 점을 조언한다.

먼저 퇴직연금 재테크에 있어선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만큼 긴 안목으로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회사마다 납입 주기가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적립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적립식 투자의 속성이 있다 ▲은퇴 후 삶과 직결되는 돈이므로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좇기보다 자신의 투자계획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 투자인 만큼 가입한 펀드에 드는 총보수와 수수료 등의 비용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입할 때 비용 1% 차이가 미미해보일지 몰라도, 연 7.0%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1억원을 투자한다면 1년 뒤엔 100만원, 5년 뒤엔 600만원, 10년 뒤엔 1500만원으로 수익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가 낮은 편이지만 퇴직연금사업자가 부과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펀드 비용을 확인하려면 퇴직연금 사업자나 해당 펀드의 운용사에서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나 펀드평가사인 펀드닥터(www.funddoctor.co.kr), 모닝스타(www.morningstar.co.kr) 등을 참조해도 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넘어왔을 때 수령금액이 1억원 안팎으로 적다면 15년 이상 연금 수령하는 것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수령금액 자체가 적기때문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연금보다 낮은 세금이 책정된다.

저소득 고령층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령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tirement.miraeasset.com)는 기초연금제도의 수령 조건과 규모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에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면 된다.

이 금액이 독신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000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령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매달 수령하는 기초연금 액수는 10만~20만원 이며 국민연금과 연계돼 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최고액 20만원을 받으며 12년 이상인 가입자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수령액이 점차 줄어들어 20년이 됐을 때 10만원까지 내려온다.

예외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30만~40만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틀어 50만원이 되도록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공유경제 플랫폼 '집밥'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 카셰어링 쏘카(오른쪽)를 이용하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을 열고 있다

비용 나누고 행복 더하니 희망이 '쑥쑥'

열린옷장·우주·코자자 등 공유경제가 새로운 문화로

#6살 남자아이를 둔 주부 성선박(34·여)씨는 아이 옷 공유 기업인 '키플'을 통해 의복비를 90%가량 줄였다. 성 씨는 "남자아이라 활동적인 데다 금방 자라기 때문에 옷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옷뿐만 아니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장난감이나 책 등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씨의 경우처럼 필요한 물건을 빌려 쓰고 나눠쓰는 '알뜰한 공유족'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집을 빌리고 경험을 공유하며 차를 나눠 타고, 취업 면접이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옷까지 함께 입는다.

◆ 옷-경험-공간-집도 나눈다

취업을 준비 중인 김민석(25·남)씨는 얼마 전 면접을 앞두고 정장공유단체인 '열린옷장'에 문을 두드렸다. 그가 4박5일 동안 빌린 정장과 구두, 와이셔츠와 넥타이 등 정장 풀세트의 비용은 3만2000원 수준이다.

'열린옷장'은 정장 등을 입을 기회는 많지 않지만 결혼식 참석이나 취업을 등 가끔씩 필요할 때를 대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정장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장을 빌린 사람과 기부한 사람들의 사연이 적혀 있어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유경제'를 통해 옷과 경험을 동시에 나누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가는 셈이다.

공간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쉐어하우스 개념의 '우주'와 빈방 공유 소셜 민박 개념의 '코자자' 등이 바로 그 주인공.

코자자와 우주 등은 국내외 여행자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끼리 한 집에 머물며 서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꾸려져 있다. 이밖에도 사무실, 공연장, 교회, 주차장 등 남는 공간을 사용하는 '모두의 주차장', '쉐어스페이스', '스페이스노아' 등도 있다.

여행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마이리얼트립'과 '플레이플래닛'은 국내외 여행에서 현지인 가이드역할을 하고 도시 투어 등 현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여행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도 한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위즈돔'과 '집밥', '로컬디자인무브먼트' 등 크고 작은 모임으로 서로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나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사람과 일을 구하는 이들을 연결해 주는 '은퇴e음'이나 공구 등 집에서 노는 물건을 등록하고 필요한 물건은 대여하는 '빌리', '티플샵' 등도 공유 경제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규제 정립·신뢰 등은 아직 문제

유휴 자본을 활용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할 대안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공유경제지만 아직 걸림돌이 많다.

과세나 거래형태, 거래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데다 기존 기업들과 공유경제 기업 간 충돌 문제도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라고 해서 '카쉐어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면 택시 등 여객 운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유경제'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등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공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과 공생을 위한 합리적 법 제도 개선 논의 필요하다"며 "공공-기업-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공유경제 참여는 넓히고, 사회봉사와 재능기부 등 비영리 공유 분야의 확대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회복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llegible]@metroseoul.co.kr

제공 서비스	공유 자원	공유기업
공간공유	유휴 공간	제이스페이스 스페이스노아 모두의 주차장
	주거공간	우주 서울 소셜 스탠다드
	숙박 시설	비앤비히어로 코자자 한국리보
경험 공유	경험/노하우 공유	위즈돔 조인어스코리아 책 읽는 지하철 집밥 있다 마이 리얼 트립 플레이플래닛
	온라인 교제수업	하이브릭스 학습놀이터
물건 공유	자동차 공유	쏘카 그린카
	물건 대여	돌콩마켓 공구대여소 빌리 장난감 도서관
	의류 공유	열린옷장 키플
일하고 창작하기	꿈 공유	은퇴 e음엔터 일상예술창작센터

기고

신혜성 크라우드산업연구소 및 와디즈 대표

공유경제는 합리적 소비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도 많이 익숙해지고 있다. 주변에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남신에 놀러갔다거나 친구들과 바다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숙박 공유서비스를 통해 현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최근에는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공유경제가 실생활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공유경제라는 단어는 해외에서 '협력적 소비'란 단어로 더 많이 불린다. '소유에서 공유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보여주듯이 국내에서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공유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건 서울시는 지난 2~3년간 공유기업들을 육성하며 자동차, 숙박시설, 여행가이드, 정장, 경험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대중에게로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에서 협력적 소비라는 의미가 더 전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협력적 소비는 변화된 소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비를 협력해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예로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여행자들은 다양한 현지인들의 집에 가서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면서도 가격은 비슷하거나 저렴하고 동시 호텔이 제공할 수 없는 현지인들의 문화체험이라는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자기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임대수익을, 두 번째로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최근에는 자신의 돈을 공유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크라우드펀딩도 국내에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사람들에게 선한 소비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혜택이 있음을 보여 줄 때 공유경제가 사람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는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공유경제 보고서를 만들었던 크라우드소싱 전담 연구기관이다.

www.saramin.co.kr

방문자수1위, 사람인

왜? 가장 많은 취업희망자가 사람인을 찾을까요

사람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취업희망자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사람인은 탁월한 취업네트워크로
대한민국 1000대 기업의 채용정보를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취업희망자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부터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업희망자의 마음으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취업사이트 !
하지만 사람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실업률 0%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aramin

게임 캐릭터 진서연 실제 환생했나?

엔씨소프트의 인기 MMORPG '블레이드&소울'(이하 블소)이 '네네치킨배 블소 비무제 임진록' 대회를 서울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3주 동안 연다.

케이블TV 채널 온게임넷이 전 경기를 생중계하는 이번 대회는 스타 프로게이머 임요환·홍진호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얻고 있다.

31일 오후 7시 A조 4명이 1주차 본선 토너먼트를 한다. A조 우승자(1위)는 홍진호와 이벤트 경기를 한다. 6월7일에는 B조 4명이 2주차 토너먼트를 하고 우승자(1위)는 임요환과 경기한다.

각 조 1~2위는 3주차에 열리는 결승전과 임진록 경기 출전 자격을 얻는다. 6월14일 결승전이 진행되고 다음날인 15일 임진록 경기에서 임요환팀과 홍진호팀으로 나눠 대결한다.

이번 대회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프로 코스튬 플레이팀 '스파이럴 캣츠'를 만나 자세한 정보를 얻었다.

임요환 홍진호 참가 이벤트도 기대
블소 비무제 홍보대사 스파이럴 캣츠 인터뷰

- 블소 임진록에서 3개의 캐릭터를 코스프레할 예정인데

1회차에는 타샤가 진서연을, 도레미 양이 남소유를 코스프레한다. 2회차 포화란 코스프레는 객원 모델인 플라티나가 담당한다. 블소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많아 고민했지만 가장 인기가 많고 대표적인 3명의 여성 캐릭터로 선정했다.

- 진서연, 남소유, 포화란을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캐릭터 컬러다. 남소유는 핑크&화이트, 진서연은 블랙&골드, 포화란은 블랙&레드. 팀원 모두 블소를 좋아하는 유저라 애정을 갖고 소품을 제작했다.

- 블소를 해본 적이 있는지

타샤의 경우 캐릭터는 역사, 레벨은 37이다. 도레미는 린 검사 레벨은 40. 얼마 전 도레미는 전상소저 의상을 획득했다. 타샤는 길쭉 강렬한 여성 캐릭터를 좋아해서 곤족을 키우고 도레미는 귀엽고 아담한 타입을 좋아해서 린족은 키우고 있다. 게임은 주로 PC방에서 한다.

- 블소와 비무에 대해 평소의 생각은

블소의 재미는 역시 커스터마이징이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크린샷 찍는 것만 해도 한두 시간이 갈 정도다. 그런데 비무는 아직 해본 적이 없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다.

- 이번 행사 중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임요환, 홍진호 선수의 재대결이 가장 큰 볼거리다. 얼마나 잘할 지도, 각각의 팀이 얼마나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지도 궁금하다. 비무에서는 무공 콤보 한 번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된다.

현장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품이 많고 연속으로 출석할수록 더 많은 아이템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유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현장 참석하는 게 이득일 것 같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브라질월드컵 바람 축구게임에 분다

NHN엔터 '위닝일레븐' 실사 그래픽 압권
시뮬 '풋볼데이' 유럽 북미 중국에 진출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 게임 업계에도 축구 열풍이 불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PC온라인 게임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 시뮬레이션 축구 게임 '풋볼데이'를 선보이며 실사에 가까운 축구 게임, 스스로 감독이 돼 전략을 펼쳐나가는 시뮬레이션 등 두 장르의 축구 게임으로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실사 축구의 정석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

NHN엔터테인먼트의 게임 개발 자회사 NHN블랙픽과 일본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개발한 '위닝일레븐'은 최신형 '하복' 물리 엔진과 '폭스' 그래픽 엔진을 장착하고 2014년 1월 첫 비공개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최신형 엔진 적용으로 △선수 무게 중심과 공 무게중심을 이원화하는 물리 법칙을 적용한 사실적 움직임 △구장의 잔디 질감, 유니폼의 휘날림 등 세밀한 텍스처까지 살아있는 그래픽 △위닝일레븐 고유의 조작감이 구현돼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위닝일레븐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축구 게임 플레이 시 선수 뽑기와 육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리얼팀을 기반으로 플레이 시작부터 100% 능력치의 선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VP(이용자 간 대결)를 즐길 수 있는 11 랭크경기와 친선경기를 비롯해 PVE(이용자와 컴퓨터 간 대결)가 가능한 연습경기, 챌린지투어 등 다양한 게임 모드를 제공하며 적절한 대전 상대를 찾아주는 '자동매칭 시스템'을 모두 적용해 편의성과 재미를 배가시켰다.

NHN블랙픽은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위닝일레븐 고수를 가리는 'LG 울트라 HDTV컵 토너먼트' 강자전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랭크경기 시즌제로' 이벤트를 6월 1일까지 진행한다.

◆ NHN블랙픽 자체 개발작 '풋볼데이'

웹 기반의 시뮬레이션 축구 게임으로 '시뮬레이션'에 '카드콜렉션' 기능을 접목해 '실시간 게임 중계 시스템', 완성도 높은 선수 카드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공개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클럽 창단수 40만, 한달 만에 75만을 돌파하며 인기 몰이를 시작했다.

시뮬레이션 게임 최초로 손흥민 등 한국 선수들 활약이 돋보이는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선스를 확보해 데이터의 방대함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출시 한달 만인 지난해 12월 모바일 버전도 전격 선보인 바 있다.

'풋볼데이'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져 넥슨 유럽, 중국 샨다게임즈, 일본의 NHN PlayArt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 북미 등 5대륙과 세계 최대 게임시장 중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핵심 시장에 진출한다. /박성훈기자

신라스테이, 5월 마지막 주말 패키지

스위트 메이, 메이 퀸즈, 베이직 에디션 등 특별한 상품 다양

SHILLA STAY

호텔신라의 고급 비즈니스 브랜드인 신라스테이(www.shillastay.com)는 5월의 마지막 주말을 특별하게 장식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5월 말까지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스위트 메이'는 피크닉 세트와 함께 에버랜드로 나들이 갈 수 있는 커플용 주말 상품으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대인 2매 ▲서피스미스 피크닉 세트 2인용 ▲2인 조식 ▲객실 1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19만원(세금 별도)이다.

여자친구들끼리 파티를 즐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4인용 레이디스 패키지 '메이 퀸즈'도 선보인다.

세련된 분위기의 바에서 JP 슈네 파송 키시스 와인 2병과 치즈 플레이트로 구성된 와인 세트를 즐길 수 있으며 4인 조식, 객실 2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31일까지 판매되며 주중 42만원, 주말 31만원(세금 별도)이다.

신라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 패키지(All inclusive package)의 '고메 에디션'은 ▲2인 조식 ▲2인 석식 ▲바에서 즐기는 라 비에이유 페름 와인(무제한 제공)과 모듬 치즈 세트 ▲객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31일까지 판매되며 주중 31만원, 주말 27만원(세금 별도)이다.

'베이직 에디션'은 객실, 2인 조식, 신라스테이 텀블러 등으로 구성된 알찬 패키지로 고급스러운 객실과 맛있는 조식으로 신라의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패키지이다. 가격은 수량 13만9000원(세금 별도)이다.

한편 호텔신라 페이스북에서는 31일까지 신라스테이 숙박권 3장, 텀블러 10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라스테이 5월 패키지' 포스팅에 댓글을 남기고 공유하기를 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장혜선기자 h.sunju0404@metroseoul.co.kr

강강술래, "5월 푸짐한 선물 드려요~"

임플란트시술권, 골프웨어, 공연티켓 등 무료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문화경품 이벤트를 벌인다.

먼저 라임나무치과병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 3분을 선정,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주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벌인다.

라임나무치과는 임플란트, 심미보철-교정, 미백, 충치치료 등 분과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신속한 맞춤 진단과 협진에 의한 원스톱 진료를 하고 있다.

세계 최정상 골프웨어 킬러웨이에는 의류상품권(10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킬러웨이는 자연 친화적인 고기능 소재를 사용하고 정제된 화려함이 느껴지는 고품격 디자인으로 골프투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돋보이게 한다.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자서 '간고등어코치 효헬스 무작정따라하기-남자 명품복근'과 '고대의 위대한 현인들이 권하는 삶의 기술을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해주는 줄스 에반스의 '삶을 사랑하는 기술, 철학을 권하다' 등 도서출판 갈렛의 추천도서 증정 이벤트도 벌인다.

이밖에 유럽 문화부흥기인 르네상스를 이끌었으며 회화·조각·건축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작품을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켈란젤로전' 티켓도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강강술래 홈페이지(www.sullai.com)에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혜일기자 ...

더위 쫓아내는 아이스크림 빙수 배스킨라빈스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담아 시원함을 더해주는 '엄마는 외계인 빙수', '쿠키앤크림 빙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빙수', '바닐라 빙수' 등 대표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빙수 4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소비자가격은 7900원.

/배스킨라빈스 제공

더페이스샵, 29일부터 '파워 서머 세일'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20~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파워 서머 세일(Power Summer Sale)'을 실시한다.

행사 기간에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은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름철 필수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 전 품목과 미백 에센스인 '스킴광채 보습 에센스', '명란 미인도 천삼송이 미특한 에센스' 등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여름철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는 '갈아만든 마스크 시트' 전 품목과 '치아씨드 피지잡는 수분크림 대용량', '스킴 이슬보습 수분크림 대용량', 그리고 간편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우선 스크림 셀 파운데이션' 등도 50% 할인 판매한다.

50% 할인 품목 중 '내추럴 선 Eco 파워 롱래스팅 선'은 더페이스샵 베스트셀링 자외선 차단제다. 강력한 자외선 차단 및 워터프루프 기능으로 땀이나 물에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특히 효과적이다. 또 해바라기 새싹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를 순하고 촉촉하게 보호해 준다.

아울러 '내추럴 선 ECO 피지 잡는 수분 선'은 치아씨드 피지 잡는 수분크림의 핵심 콘셉트를 그대로 담은 셀 타입 자외선 차단제다. 강력한 수분 보유력을 가진 치아씨앗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코튼씨앗 성분이 불필요한 피지를 잡아준다. 땀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에도 번들거림 없어 보송보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외에도 치아씨드 피지잡는 수분크림 대용량은 목화씨앗이 과다한 피지는 잡아주고 치아씨앗이 피부 속 깊이 풍부한 수분을 전달해주는 베스트셀러 수분크림이다. 땀과 피지로 피부 표면은 번들거리고 피부 속은 건조하기 쉬운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좋다.

/장혜선기자 h.sunju0404@

BTC아카데미, '티마스터'수강생 모집

차(tea) 전문 교육 기관 BTC 아카데미가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인 '티 마스터'의 수강생을 7월 4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차의 맛과 향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알려준다.

또 각종 외식 업계 종사자가 차와 실무적인 활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6대 다류인 녹차·백차 홍차 등이 찻잎을 이용한 제조 과정 ▲인도·스리랑카·중국 등 산지별 차를 통해 배우는 향미와 이해 ▲차 역사와 문화로 배우는 나라별 식문화 ▲리포트 계획 등이 마련돼 있다.

문의: BTC아카데미 홈페이지(www.btcacademy.co.kr) (02)571-5358

/정혜일기자 ...

소비자, 집 근처 마켓 많이 찾는다

불황으로 식료품 시장은 매출 줄어…냉장·냉동 식품만 선전

국내 소비자들이 한 달 평균 3.6개의 소매점을 방문해 쇼핑한다는 조사자료가 나왔다. 또 대형마트보다 근거리 마켓에 대한 선호 경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대표 신은희) 유통서비스팀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53개 주요 국가의 2013년 쇼퍼 및 유통 트렌드를 담은 '쇼퍼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자료가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 채널의 갈 방향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 근거리 쇼핑 채널 '뜬다'

먼저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내 국내 쇼퍼들의 대형마트 방문율이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한 88%를 기록했다.

반면에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근거리 쇼핑 채널의 쇼퍼 방문율이 전년 대비 각각 9%포인트 상승한 65%, 8%포인트 상승한 51%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또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쇼핑점이 대형마트라는 응답이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한 64%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11%), 개인형 중대형 슈퍼마켓(8%), 편의점(3%)이 주 쇼핑 채널이라고 응답한 쇼퍼 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닐슨코리아 측은 "아직까지 한국 소비자들의 대형마트 채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근거리 쇼핑채널의 방문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고객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필품보다는 식료품 직격탄

소매유통 매장에서의 구매 목적별로 보면,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정기적 장보기를 통한 대량 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한 32%를 기록했다. 식사 준비를 위한 식료품 구입 비율도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한 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식재료 외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한 비율은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21%를 기록해 식료품보다는 생필품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식품 '나홀로 성장'

2013년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기준 식료품 판매 현황을 보면, 전체 식료품 판매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약 1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식사 준비 재료로 쓰이는 농수축산물 및 조미료 등 소재군 카테고리 판매액이 모두 전년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냉장·냉동 간편식 판매는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침체된 식료품 시장에서 '나홀로 성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1~2인 소형 가구, 맞벌이 부부, 야외 활동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간편식 시장이 침체된 식료품 시장에서도 호황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간편식을 구매하고 있다.

◆ 습관적 쇼퍼 증가

한국 쇼퍼들은 식료품·생활용품 구입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매장을 비교하며 최적의 쇼핑 장소를 선택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자주 찾는 매장을 방문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을 보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해서 가장 괜찮은 매장을 선택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한 51%를 기록했다. '늘 같은 매장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한 54%를 기록했다.

'식료품 매장은 모두 다 비슷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도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한 45%를 기록해 쇼퍼들이 식료품·생활용품 판매 매장에 대해 느끼는 차별적 매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열휘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소셜 패션 판, 확 바꾸겠다"

위메프 이선우 패션사업부장 인터뷰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패션사업 부문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위메프는 올해 패션 잡화 비중을 전체 상품의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노하우를 집약시켜 연 내 패션사업 규모를 3000억원대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가 보여준 패션사업은 가격 요소에 집중한 '싸게 싸게' 전략이었다. 브랜드는 있지만 제 위치에 브랜딩이 돼 있지 않은 소위 '마구잡이 식' 사업 전개로 온라인 유통 채널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회사는 직전 상품 매입부터 기획-생산-유통까지 책임지는 PB상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개한다는 방침이다.

변화의 중심에 패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이선우(사진) 사업부장이 있다.

이 사업부장은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패션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다루는 방법, 사업 전개 방식 등을 본질적으로 바꾸겠다"며 "시즌성 트렌드 제품군과 인지도가 있는 소호 제품군, 브랜드 정체성이 명확한 소위 백화점 제품군 등 3가지로 나눠 각 상품군마다 명확한 브랜딩을 하는 게 우선 첫번째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illegible] 소셜커머스 [illegible] 정인 다양한 상품에 대한 딜은 그대로 진행하되 온라인 몰의 강점 역시 가져가야 한다"며 "상품의 다양성은 좋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해서는 안된다. 디스플레이는 상위 20% 제품들로만 채울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또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품 기획력이 중요해지면서 MD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 접근하던 소셜커머스 업계들이 몰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듯하다. 바꾸도록 기반부터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끝으로 "소셜커머스에서도 패션사업을 제대로 하는 '전문성있는 위메프'로 거듭나 '패션=위메프' 공식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학철기자

더위를 녹이는 달콤한 유혹!

명품호텔서 즐기는 빙수의 매력 어떤게 있나

기온이 높아지면서 잠시라도 더위를 식혀줄 빙수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도심의 명품호텔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빙수의 매력에 빠져보자.

◆홍시부터 타피오카까지

우선 리츠칼튼 서울의 더 가든은 '견과류 팥빙수'와 '홍시 빙수' 두 종의 빙수를 선보였다. 견과류 팥빙수는 100% 국내산 통팥과 영양이 풍부한 5종의 견과류가 토핑으로 올라가며 홍시 빙수는 눈꽃 얼음에 홍시로 만든 퓨레와 아이스홍시가 곁들여진 빙수다.

더 플라자의 프렌치 프리미엄 베이커리 에릭케제르는 8월 말까지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총 3가지 빙수가 출시됐으며 그중 3가지 베리와 초콜릿이 들어간 '몽쥬 빙수'와 단호박으로 만든 시럽이 들어간 '포티롱 빙수'가 눈에 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로비 라운지에서는 '망고 스파클링 쉬라스 빙수'와 '과일 팥빙수'를 맛볼 수 있으며 롯데호텔서울에서는 '애플망고 빙수'와 '전통 팥빙수'를 즐길 수 있다.

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5가지 종류의 빙수를 비롯해 6종의 아이스크림 메뉴를 준비했으며 임피리얼 팰리스는 망고를 다양한 맛으로 표현한 '꽃보다 망고 빙수'를 제공하고 있다.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고객이 토핑을 골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핸드 메이드 빙수'를 통해 식다른 재미를 더했으며 세종호텔 라운지&다이닝 베르디에서는 '웰빙 빙수'가 건강식 디저트를 책임지고 있다.

/윤채윤기자 [illegible]

영양부족 포도당으로 보충을

뇌의 유일한 공급원…100% 흡수 식음료 출시

건강을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영양관리에 소홀해 영양 부족 증상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중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은 현대인의 건강 필수 성분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포도당은 세포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1차 영양소로 뇌에 공급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이 때문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각광받고 있다.

포도당은 식음료로 섭취해도 인체에 100% 흡수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제품이 JW중외제약의 기능성 포도당 음료 '4PM'이다.

이 제품은 카페인이 주성분인 기존 에너지 음료와 달리 포도당과 타우린 1000㎎·비타민C·천연 과즙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김이용기자

오랜 무명 설움 딛고 가요계 돌풍 주역으로

가요계 '썸' 열풍 일으킨

정기고

데뷔 12년 만에 가수 정기고가 올 상반기 가요계 '썸'으로 돌풍을 일으킨데 이어 3개월만에 '너를 원해'로 또다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무명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 알리기까지 결코 쉬지 않았다. 무려 12년이나 무명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다만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기고는 유명인으로 통했을 뿐이다.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을 각인시킨 정기고의 삶에서는 희망 미리는 단어가 떠올랐다.

◆ 음악 좋아하는 청년에서 스타로

'부잣집 아들', '음악은 취미?', '씨스타 소유 덕분?' 데뷔 12년 만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정기고는 자신의 인기를 실감하기 전부터 이 같은 세간의 질투를 한몸에 받았다.

대형 기획사나 히트곡 없이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홍대 인근에서 10년 넘게 생활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는 "음악 이외에 욕심이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돈 쓸 일이 없었다. 페스티벌을 다니면서 용돈을 벌었다"며 "예능 프로그램에 유명한 족발집 아들이라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성같이 등장한 그지만 12년 넘게 인디 신에서 잔뼈가 굵은 보컬리스트다. 2002년 우연한 기회에 이이언의 리스펙트유 피처링에 참여했던 걸 계기로 데프콘, 재지, 아이바 등 많은 힙합뮤지션의 피처링에 참여했다. 또 2008년까지 40~50여 곡에 달한다.

조용히 음악을 즐기던 그가 지난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대중가수로 발돋움했다. 오랜 기간 정기고를 알고 지낸 지인들과 팬들에게는 예상밖 행보였다.

"그저 음악, 공연, 사람들과 어울림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피처링을 하면서 하고싶은 음악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2013년 싱글을 발표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죠. 반응은 좋았지만 평생 음악을 하려면 대중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기고의 음악은 변하지 않아요."

◆가수 인생 제2막 시작

정기고는 걸그룹 씨스타 소유와 함께 했던 '썸(2월 발매)'으로 음악 방송에서 아이돌을 누르고 총 11개의 트로피를 싹쓸이했다. 이어 빈지노와 입을 맞춘 '너를 원해(5월 발매)'도 공개와 함께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실력을 검증했다. 그야말로 꿈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단숨에 스타반열에 오른 정기고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시 음악적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정기고에게 무명과 스타는 없는 것 같다. 꾸준히 작사 작업을 해왔다"며 "너를 원해 활동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앨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대위 정기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대중들에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데뷔 12년 버팀목 '음악 사랑' 올 목표는 정규 앨범 발매

"활동했던 기간에 비해 앨범 분만이 아니라 노래도 많지 않아요.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제 이름으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동안 저를 응원해 준 팬이 틀리지 않고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정기고의 팬이라는 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규앨범'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자연스럽게 피처링 지원에 나서는 가수가 궁금해졌다. 그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앨범 작업을 하면서 꼭 함께하고 싶은 가수는 있었다"며 "씨스타 효린과 새로운 느낌의 음악을 완성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유상우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최송이

봉준호 제작 '해무' 5개국 판매

한국영화 평균가 상회

해무 포스터

봉준호 프로젝트 '해무'가 최근 폐막한 칸에서 해외 5개국에 선 판매됐다.

배급사는 28일 "'해무'가 칸 영화제 마켓에서 일본·프랑스·대만·홍콩·싱가폴에 판매됐다. 한국 영화의 평균 판매가를 상회하는 높은 금액에 팔렸다"면서 "유럽과 북미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8월 개봉될 이 영화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를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처음 제작에 나서고, '살인의 추억' 각본을 쓴 심성보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다.

낡은 어선에 오른 여섯 명의 선원이 밀항자들을 실어 나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다. 김윤석·박유천·한예리·이희준·문성근·김상호·유승목 등이 출연한다.

앞서 '해무'는 칸 영화제 마켓에서 10분 분량의 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을 접한 프랑스 배급사 와일드사이드 관계자는 "시나리오를 읽고 느꼈던 모든 감정과 긴장감보다 몇 배로 증폭된 강렬한 힘이 있었다. 봉준호는 인간 내면의 탐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극찬했다.

/박진환기자

정교한 구성 허 찌르는 유머

칸 감독주간 초청작 · 완성도 높은 범죄스릴러

film review
/박준호 기자 ·····@metroseoul.co.kr

■끝까지 간다

제67회 칸 영화제 감독주간 부문에 초청받은 영화 '끝까지 간다'는 독특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범죄스릴러물이다.

이 영화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 실수로 저지른 뺑소니 교통사고를 은폐하려는 형사 고건수(이선균)가 정체불명 목격자의 등장으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가자 위기에 몰리는 이야기를 그렸다.

앞서 칸에서 받은 극찬대로 영상·구성·연기 등 모든 부분이 뛰어나다.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중 가장 오락적이고 탄탄한 구성을 갖춘 작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색과 연출을 맡은 김성훈 감독이 5년이나 매달린 작품답게 복선과 반전을 예상치 못할 곳곳에 숨겨놓은 시나리오가 매우 정교하다. 주연배우인 이선균과 조진웅은 사실적인 연기와 액션으로 극의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을 꼽자면 좀처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스릴러와 코미디가 절묘하게 섞였다는 점이다.

김 감독은 2006년 코미디 영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에선 미덥다 할 감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 영화에선 허를 찌르는 유머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해 관객의 심장을 마음대로 주무른다.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면 어머니의 장례와 뺑소니 사고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긴박하게 흘러가는 전개를 가슴 졸이며 보다가 어느 순간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할 수 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나쁜 놈'과 그를 괴롭히는 '더 나쁜 놈' 중에서 '나쁜 놈'을 응원하는 아이러니도 발견하게 된다. 영화는 29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신의 한 수'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정우성 /연합뉴스

"강렬하고 정갈한 액션 보세요"

정우성, 영화 '신의 한 수' 연기 자신감

7월 개봉될 영화 '신의 한 수'에 출연한 정우성이 대표작 '비트'보다 강렬한 액션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8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신의 한 수'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그는 "'비트'를 찍을 당시에는 패기만 충만했지만 이후 다양한 작품을 거치면서 액션 노하우가 쌓였다. 이번 작품에서는 더 강렬하면서도 정갈한 액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자의 땀 냄새가 나는 액션을 보여주고 싶어서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정말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고백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배우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비트'와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정우성은 그중 '비트'에 대해 "내게 청춘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선물했지만 수없이 많은 청춘들에게 악영향도 끼친 작품이다. 당시를 계기로 영화의 파급력을 느꼈고 어떤 자세로 연기를 할 지 고민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신의 한 수'는 형을 잃고 살인누명을 쓴 프로 바둑기사 태석(정우성)이 전국의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모아 복수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안성기·이범수·최진혁·이시영도 참석했다. 극중 시각장애인인데도 바둑을 두는 주님 역을 맡은 안성기는 "시각장애 연기는 처음인데 쉽지 않았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환기자

이병헌 '터미네이터 5'서 악역 T-1000?

내년 7월 개봉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이하 '터미네이터 5')에 출연하는 이병헌(사진)이 극중 주요 배역인 T-1000을 맡는다는 설이 제기돼 화제다.

최근 온라인에 '터미네이터 5' 촬영 큐시트로 추측되는 프린트물이 유출됐다. 해당 큐시트에는 촬영 시간(Shooting Call), 촬영 장소(Location), 출연자(Cast Player) 등의 정보가 포함됐으며 이병헌(Byeong Hun Lee)의 이름 옆에 경찰(Cop) T-1000이라고 적혀 있다.

T-1000은 1991년 개봉한 '터미네이터 2'에 등장한 악역이다. 물처럼 녹아내렸다가 다시 로봇으로 변한 이 캐릭터는 '터미네이터' 시리즈 사상 최고의 캐릭터로 꼽힌다. 당시 로버트 패트릭이 이 배역을 연기했다.

'터미네이터 5'는 사라 코너(에밀리아 클라크)와 존 코너(제이슨 클락)의 아버지인 카일 리스(제이 코트니)의 젊은 시절을 그리는 이야기로 총 3부작으로 제작된다.

이병헌의 배역과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여전히 "말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진환기자

단오에 쑥떡을 먹는 까닭은…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머잖 후면 단오다.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지만 우리는 이날 전통적으로 쑥떡을 먹었다. 왜 하필 쑥떡이고 언제부터 쑥떡을 먹었을까?

단오절에 먹는 쑥떡의 역사는 뿌리가 꽤 깊다. 먼저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는 단오에 쑥을 뜯어 멥쌀가루와 섞어 초록색이 되도록 반죽해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북잡록(燕北雜錄)이라는 책을 인용해 요동 풍속에 음력 5월 5일 발해에서는 쑥떡을 만들었는데 우리 풍속도 여기서 비롯된 것 같다고 적었다. 송나라 역사책인 송사(宋史)에도 고려에서는 단오에 쑥떡을 만들고 그네를 타는 풍속이 있다고 했으니 단오 쑥떡의 역사는 조선은 물론 고려를 넘어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다.

이전 할머니들은 단오에 쑥떡을 먹어야 액땜을 한다고 했다. 한때는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알고 보면 과학이다. 단오는 양기가 넘쳐 좋은 날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나쁜 기운이 쏟아지는 날이기도 했다. 6세기,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단오날 전갈, 뱀, 지네, 거미, 두꺼비가 독을 뿜는다고 했다. 해석하자면 초여름이 시작됐으니 해충들의 독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옛날부터 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벌레와 나쁜 기운은 쫓는 약초였으니 여름철 시골에서 쑥으로 모깃불을 삼았던 이유다.

서양도 마찬가지로 쑥은 영어로 머그워트(mugwort)인데 어원이 모기, 나방을 쫓는 식물이라는 뜻이다. 웜우드(wormwood)라고도 하는데 벌레, 특히 몸속 기생충을 없애는 식물에서 유래한 단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벌레는 물론 눈에 안 보이는 뱃속의 악귀를 몰아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믿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웅녀가 되려고 굳이 쑥을 먹어야 했던 이유다.

단오에 먹는 쑥떡은 여름이 시작되는 날, 앞으로 가슴을 쿠땅 벌레를 물리치고, 나아가 계층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자는 의도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액땜을 한다는 뜻이다. 월요일인 6월 2일이 단오다. 쑥떡은 먹으며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좋겠다.

/음식문화평론가

날씨

5/29 木 일출 05:14 일몰 19:4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지역	기온
서울	17/30
청주	16/31
대전	16/31
전주	16/32
광주	17/32
제주	16/26
강릉	18/32
울릉도	17/30
대구	18/34
포항	19/32
울산	17/31
부산	16/27

봄바람은 코와 기관지 점막을 수축시켜 신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독감·감기 폐렴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ngwc8.com

남은 인생 보람있게 살고싶어 남에게 베푸는 일 찾아보도록

체리화 여자 62년 3월 9일 음력 새벽

Q 저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식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온 전형적인 주부입니다. 괴팍을 운운하는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편 뒷바라지에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해본 적도 없이 평생을 매여 살았습니다. 어찌 해야 제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수있나요?

A 음관에 토끼 와 같이 예민하고 분명한 기질이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야 즐거운 인생이 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여 살게 되니 지치게 된 것입니다. 한정살(限殺)을 날카로운 기질을 나타내는 오행이 겹쳐 있어 평생 타인을 위해 적덕해야 자신의 신세에 좋은 팔자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생일자에 편관(偏官)을 나를 극하는 오행)은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여 의협지심이 있습니다. 재운(재물과 사업운을 다타냄)이 좋게 나기므로 의류계통이나 여러분 계통에 인연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명분과 가치가 있고 남에게 베푸는 일로 4대보험을 받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후를 보내도록 해보세요.

사는게 힘든데 외국행 어떨지 남보다 두세배 더 노력하세요

hynin 남자 72년 11월 7일 유시 제사시

Q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43살의 생일은 11월 7일 양력이고 저녁 밥 마을 쯤 됩니다. 지금 살아 가는데 힘이 듭니다. 어느 역학원에 가서 물어 보니 국내에서 일이 안되고 어려움 겪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것이 곡을 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밖에 나가면 잘될까요? 외국에 나갈 형편도 안됩니다.

A 대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니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영감감'서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조(사주구조)에 임수(壬水)사주가 추운계절에 태어나서 음기가 강합니다. 자연적으로 양기(陽氣)를 띤 화(火)의 기운이 필요하고 강한 수기를 뺏주는 목기(木氣)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금기(金氣)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귀하의 텃밭이 되므로 역마를 타고 있으니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 역술인은 옳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세운에서 목기운과 화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외국으로 가지는 말습니다. 사주에 진용신(眞用神) 진정한 다의 수호신이 없으니 지금은 남보다 두 세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8				4	1
5				4		8		7
		6		7	5		8	
3	1		6		4		7	9
	8		2	3		6		
6		4		9				2
9	7				1			
								5

7		9	5		8			
		4		9		8	2	
5			4				3	
			2				5	8
		1	7		5	3		
3	8				1			
	7				3			4
	5	6		7		9		
			8		4	5		2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펜시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저음)

신점[神占] 운세

5월 29일 (음 5월 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다. 60년생 호시다며 니 끝까지 전등할 것. 72년생 삶에 전환점이 될 경사가 생긴다. 84년생 자신감과 오기는 다름을 명심하라.

소 49년생 마음을 비우면 제사 순조~ 61년생 조건에 많은 동업은 깨진다. 73년생 운전으로 인한 시비를 조심할 것. 85년생 말과 행동이 같아야 신뢰가 쌓인다.

호랑이 50년생 자녀가 기대에 부응한다. 62년생 일이 잘 풀려도 긴장의 끈 놓추지 말라. 74년생 느긋하게 기다려야 이삭이라도 줍는다. 86년생 충고에 귀 기울여라.

토끼 51년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63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75년생 검증되지 않는 자료는 재검토할 것. 87년생 몇 받게 하던 사람은 떠난다.

용 52년생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따른다. 64년생 일 못된 일은 벗트 말라. 76년생 직장인은 조직서 원형력 너욱 커진다. 88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오 해피~

뱀 53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65년생 해대이 클수록 부담도 커진다. 77년생 배우자와 자녀에 신경 써라. 89년생 그대의 애교가 부모의 가슴을 채운다.

말 42년생 뿌린 만큼 돌려받는다. 54년생 운서 믿은 심사숙고할 것. 66년생 원칙이 무너지면 심한 후유증이 따른다. 78년생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우울한 하루~

양 43년생 서운한 것 잊으면 편안~ 55년생 목표보단 원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 67년생 일이 잘 될려도 아연하면 되었지 는 금물~ 79년생 기다리면 소식은 듣는다.

원숭이 44년생 따뜻한 이웃 때문에 즐겁다. 56년생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적이 너 무서운 법~ 68년생 방심하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80년생 주위 시선이 따가워도 버텨라.

닭 45년생 자녀에 속내 멋부로 드러내지 말라. 57년생 좋은 일에 마력이 거론된다. 69년생 부질없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 81년생 친구가 토슨보따리 선물 한다.

개 46년생 좋은 뒤에 마가 낀 게이다. 58년생 큰한 일을 처리한 후 다음을 생각할 것. 70년생 남의 불행 이용해 더 보는 일은 삭하라. 82년생 너무 튀면 구설수 오른다.

돼지 47년생 목돈 쓸 경사 있으니 준비하라. 59년생 원색과 적수가 행운 부르니 참조~ 71년생 자영업자는 뜻밖의 수입이 생긴다. 83년생 상사의 말에 토 달지 말라.

무릎꿇은 태극전사 한숨가득 붉은악마

튀니지 평가전 0-1패…출정식 앞둔 상암벌 허탈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튀니지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에서 0대1로 패한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대표팀이 국내에서 연 마지막 평가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게 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43분에 허용한 상대에 일격을 만회하지 못하고 0-1로 패했다. 대표팀은 이날 경기 내내 무거운 몸놀림으로 이렇다 할 공격을 펼치지 못한 채 무득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아프리카의 강호 알제리전을 대비해 튀니지와 경기를 치렀고 실전에 맞춘 4-2-3-1 포메이션을 구사했다. 박주영(아스널)이 원톱 스트라이커를 맡고 구자철(마인츠)이 세도 스트라이커로 나섰다.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좌우 날개를 담당했다.

중원 미드필더는 기성용(스완지시티)과 한국영(가시와 레이솔) 조합이 배치됐다. 포백에는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김영권(광저우 헝다)-이용(울산)이 기용됐다. 골키퍼는 정성룡(수원)이 맡았다.

한국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느슨한 수비, 역습 부재, 단순한 공격 루트를 또 한번 노출했다.

전반 1분 만에 홍정호의 실수로 슈팅 기회를 내줬던 한국은 전반 4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윤석영의 부정확한 크로스가 이어지며 위기를 맞았다. 윤석영은 전반 13분에도 왼쪽 측면 돌파에 나섰지만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공격수의 머리를 제대로 향하지 못한 엉성한 크로스로 동료의 힘을 빠지게 했다.

한국은 전반 14분 이용의 패스를 받은 구자철의 왼발 슈팅이 나오며 겨우 공격 신고식을 치렀다. 전반 중반에 들어서야 서서히 조직력을 끌어올렸고 전반 39분 왼쪽 측면 오버래핑에 나선 윤석영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슈팅을 하며 5만7000여 관중을 흥분케 했다. 하지만 상대 주하이에르 디우아디(클럽 아프리칸)의 골은 상승세를 타던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후반전에도 전반전과 똑같은 선수를 내보낸 한국은 후반 13분 백패스를 받은 홍정호가 상대 공격수를 따돌리려다 깊은 태클을 당하며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을 맞았다.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진 홍정호는 결국 들것에 실려나갔고, 곽태휘(알힐랄)가 대체 멤버로 투입됐다.

이후 구자철 대신 이근호(상주), 손흥민 대신 김보경(카디프시티), 기성용 대신 하대성(베이징궈안), 박주영 대신 김신욱(울산), 이청용 대신 지동원(도르트문트)을 차례로 투입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무기력한 경기를 끌고 가던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에 지동원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하대성이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시도한 강한 슈팅이 왼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며 끝내 득점에 실패했다. 이날 경기 후 치러진 월드컵 출정식 역시 경기의 패배로 힘이 빠진 모양새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박인비 vs 루이스 1위 샷대결

여자골프 세계랭킹 1·2위인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숍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샷대결을 펼친다. 박인비의 수성이냐 루이스의 뒤집기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발의 차로 순위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는 31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스톡턴 시뷰 골프장(파71·6155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출전한다. 28일 현재 박인비는 세계랭킹 포인트 9.58점을 기록, 58주째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루이스의 도전이 거세다. 박인비는 2주간 휴식을 취하고 지난 주 에어버스LPGA클래식에 출전했으나 급격한 난조를 보이며 약 1년 만에 LPGA투어에서 컷 탈락으로 부진했다.

루이스가 에어버스LPGA클래식에서 단독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 박인비의 세계랭킹 1위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렸다.

하지만 루이스가 최종 4라운드에서 한 타를 줄이는 데 그치면서 공동 10위로 대회를 마쳐 세계랭킹에는 변동이 없었다. 에어버스대회 이후 루이스의 포인트는 9.36점으로 박인비와의 격차가 다시 좁혀져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순위 변화가 가능하다.

/[illegible]기자

프로야구 전적 28일

■잠실

팀				계
삼성	000	110	032	7
LG	000	031	000	4

■목동

팀				계
SK	005	[illegible]	000	5
넥센	000	003	04X	7

■대전

팀				계
NC	[illegible]	[illegible]	323	[illegible]
한화	000	001	000	1

■광주

팀				계
두산	001	[illegible]	207	[illegible]
KIA	031	101	000	6

박찬호 13년 만에 다저스 마운드

한국의 날 시구자로… 류현진과 포옹

박찬호(41)가 다저스타디움 마운드에 다시 섰다.

한국인 첫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다. 현재 다저스 마운드의 기둥인 류현진이 대신 공을 받았다.

박찬호는 현역 시절 등번호인 61이 새겨진 다저스 유니폼 상의를 입고 등장했고, 시구 전 마운드를 만지며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시구를 마친 후 그는 류현진과 진한 포옹을 나눴다. 류현진은 전날 7이닝까지 퍼펙트를 기록하며 7⅓이닝 3실점으로 시즌 5승(2패)을 달성한 데 이어 또 한번 다저스 홈팬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박찬호는 한양대 재학 중이던 1994년 다저스와 계약했고, 그해 4월 8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며 한국인 첫 메이저리거가 됐다. 다저스에서 8시즌을 뛰었고 텍사스 레인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뉴욕 메츠, 필라델피아 필리스 등을 거치며 2010년까지 17시즌 동안 124승(98패)을 올렸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이다.

2011년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 입단한 그는 2012년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뛰고 은퇴했다. 류현진은 2012년 박찬호와 같은 팀에서 뛰었고 그해 12월 다저스와 계약하는 등 대선배와의 인연을 이어왔다.

다저스는 28일 경기를 '한국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씨엔블루의 정용화는 애국가를 불렀다.

/유순호기자 suno@

G3 화질의 궁극을 만나다
HD보다 4배 더 선명한 Quad HD 디스플레이
LG
LG